

오카야마현립도서관을 다녀와서

김 지 봉*

1. 일본 공공도서관 연수 추진 배경

금년 7월에 일본 공공도서관 견학을 하고 왔다. 이번 일본 공공도서관연수는 경기도사서연구회에서 기획하였는데, 이미 1999년과 2001년도에 걸쳐 2회 연수경험이 있어 어려움 없이 일정을 마칠 수 있었다. 2003년도 연수는 오사카(大阪), 교토(京都)와 오카야마(岡山)지역 공공도서관을 방문하기로 계획을 하였다.

오사카아베아시립도서관(大阪阿倍野) 기류히데토(桐生偉人) 관장의 도움으로 방문도서관에 미리 연락을 하고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을 비롯한 5명이 7월 10일 출발하였다.

이번 연수는 작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신축과 관련하여 도서관 건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시작되었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은 경기도 최초의 공공도서관이면서 지역대표관이다. 그러나 도립중앙도서관은 1968년도에 건축을 시작하여 1970년에 개관하였는데 30년이 경과한 노후한 시설로 대표도서관기능은 고사하고 지역 공공도서관 기능을 수행하기도 어려움이 많았다.

2002년 도립중앙도서관 신축을 결정하면서 처음에는 새로운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을 일반적인 공공도서관 기능중심으로 구상하였다가 나중에 지역대표도서관 기능부여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지역대표관의 기능이 형식적이고 분명한 역할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지역대표도서관 제도가 정착된 일본을 가보기로 한 것이다.

2. 오카야마(岡山)현립도서관 방문 배경

오카야마신현립도서관(岡山新縣立圖書館)은 2003년에 착공하여 2004년도 10월에 개관하는 현재 건립중인 일본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하나이다. 아마 현재 운영중인 도서관이 아니고 건립중인 도서관을 견학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사실 오카야마신현립도서관은 2002년부터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이전을 추진하게 되면서 새로운 공공도서관 모델을 알아보고 있던 중, 오카야마종합문화센터 도서관 사이트에서 관계자료를 보고 알게 되었다.

기존의 오카야마 종합문화센터가 건축한지가 30년이 넘었고 또한 건물이 도서관, 전시홀 및 문화센터기능의 복합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현의 중심도서관으로 기능을 수행하기가 불편하였다. 또 21세기

* 경기도립과천도서관 정보봉사과장, kgb1575@hanmail.net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대규모 공공도서관들이 속속 건립되어 운영하는 것에 많은 자극을 받고 있었다. 이에 오카야마현에서 140억엔을 투자하고 1999년부터 오카야마신현립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여 2004년 10월경이면 새로운 현립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왼쪽부터 : 오카야마현립도서관장, 조문숙경기도립중앙도서관정보봉사과장, 김지봉경기도립과천도서관정보봉사과장, 히시가와히로미츠오카야마현립도서관사서주임〉

7월 11일 신오사카역에서 산요신간선(山陽新幹線)으로 50분 정도를 달려 오카야마역에 도착하였다. 바로 역 앞에서 택시를 타고 10분 정도 달린 후에 도서관에 도착하였다. 오카야마 중심부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들어가자 정문에 있는 안내직원이 금방 알아보고 총무과로 안내하였다. 곧 이어 도서관장과 히시가와히로미츠(菱川廣光) 사서의 안내로 오카야마신현립도서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오카야마현립도서관장은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오카야마신현립도서관 건립배경을 설명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관장은 오카야마신현립도서관이 준공되는 2004년 10월 이후 다시 한번 방문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 오카야마신현립도서관의 기본계획서 1부도 복사본으로 기증받았다. 총무과 사무실에서 기본설계서를 보면서 히시가와 사서의 설명을 1시간 정도 들었는데 간단한 일본어, 영어 그리고 필담으로 한자를 써가며 대화를 나누었다.

3. 오카야마현 개요

오카야마현은 일본 오사카시(大阪市)가 있는 긴끼(近畿)지방 서쪽에 위치한 주쵸꾸(中國)지방 중심에 있으며 주쵸꾸지방 아래에 있는 시쵸꾸(四國)지방으로 가는 교통 연결지이다.

특히 1972년 산요신간선이 개통되어 오사카(大阪)와 후쿠오카(福岡)를 연결하는 중심이 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 그리고 일본 최대의 연륙교인 세토(瀬戸)대교가 오카야마와 시쵸꾸지방을 연결하고 있는데 일본 전역에서 많은 관광객이 몰려 오고있다.

오카야마현은 고대부터 풍부한 자연과 온난한 기후로 맑음의 지역으로 알려졌다. 오카야마현은 본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지진이나 풍수해가 적고 교통의 중심인 배경으로 3차산업이 발전되어 왔다. 오카야마현은 면적이 71,121km²이며 인구는 196만명 정도이다. 오카야마현도 일본의 다른 지역처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1.4%가 될 정도로 노인이 많다. 오히려 0세부터 14세까지 유년인구 14.5%에 불과하여 앞으로 자연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으로 예상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오카야마현 소재지인 오카야마시는 면적이 5,131km²이며 인구는 63만명 규모이다. 참고로 오카야마현은 36개 시(市),정(町), 촌(村)이 있으며 이 지역에 12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다. 그리고 공민관, 학교 및 기타 복지시설에 29개의 공공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 다른 일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된다.

4. 현립도서관(縣立圖書館)의 성격

일본 공공도서관 시스템은 지방자치제도와 관계가 밀접하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인 도, 도, 부, 현(都,道,府,縣)과 기초자치단체인 시, 정, 촌(市,町,村)으로 구분된다.

광역인 도(都)는 수도인 동경도(東京都)가 있고 도(道)는 북해도(北海道)뿐이다. 부(府)는 오사카부(大阪府)와 교토부(京都府) 2개가 있고 그 나머지는 현(縣)으로 43개의 현(縣)이 있다. 오카야마현은 그 중 가운데 하나로 36개 시, 정, 촌(市,町,村)기초단체를 가진 광역자치단체이다.

따라서 오카야마현립도서관은 오카야마현청 소속으로 오카야마 교육위원회의 산하기관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통합된 자치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공공도서관은 지방행정 중심으로 단일화되어 있다. 행정체계상으로 지사나 시장이 최종책임을 지지만 운영은 교육위원회 평생교육과(국)에서 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운영을 평생교육(일본에서는 생애교육이라고 한다)차원에서 하고 있으며 일반행정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간섭은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

현립도서관은 일본이 1980년대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지방분권과 정보화사회의 영향으로 광역도서관 기능강화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방분권은 본래의 취지가 지방자치제들이 각각에 의한 창의와 노력에 의해서 충실하여 지는 것이다. 그 영향으로 공공도서관 또한 지방 스스로의 노력으로 발전되도록 요구된다. 그 중심이 바로 광역도서관인 것이며 그 결과 광역도서관은 대규모 도서관을 지향하게 되고 그 지역의 중심이며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도서관이 되었다. 광역자치단체(都,道,府,縣)의 교육위원회는 그 지역 전체의 도서관 목표로 해야 하는 도서관 서비스의 본연의 자세와 도서관 상을 구체적으로 주민에게 제시한다. 또 제시된 도서관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 진흥시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기초자치단체 산하 공공도서관의 정비와 시스템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바로 그 중심이 광역도서관이며 오카야마현립도서관도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하나인 것이다. 현립도서관의 이해를 위하여 일본 문부성이 2001년 7월18일 고시한 “공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상의 바람직한 기준”(문부과학성 고시 제 132호)에 제시된 도, 도, 부, 현(都,道,府,縣)립도서관의 운영의 기본방침을 일부 소개한다.

“도, 도, 부, 현(都,道,府,縣)립도서관은 주민의 수요를 광역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자료 및 정보를 수집, 정리, 보존 및 제공하는 입장에서 시, 정, 촌(市,町,村)립도서관에 대한 지원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도, 도, 부, 현(都,道,府,縣)내의 도서관간의 연락조정 등의 추진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5. 오카야마신현립도서관 기능과 건축 개요

5-1. 건축배경

오카야마신현립도서관(岡山新縣立圖書館)은 오카야마현청에서 21세기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위한 교육인프라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오카야마현청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평생학습사회 “오카야마”의 실현을 목표로 고도화(高度化)·개선



화(個性化) 등 다양화(多樣化)해 나가는 현 주민의 요구에 대응하고, 현역(縣域)의 교육·문화의 중심으로 현민에게 풍부한 평생 학습 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새로운 현립도서관의 정비를 추진하였다고 한다.

마침 1999년 오카야마시 마루노우치 중학교를 철거하면서 그 토지를 신도서관 단독건립부지로 결정하고 2000년도에 매장문화재조사, 2001년도에 기본설계, 2002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친 후에 2002년 10월에 착공식을 가졌다. 신도서관은 2004년 10월에 개관할 예

정으로 예산은 140억엔 정도가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건축개요는 다음과 같다.

- 부지면적...약 13,300㎡
- 건축넓이...약 4,300㎡
- 총건평...약 18,000㎡
- 높이...최고 높이 약 23m
- 계층...지상 4층, 지하 1층

5-2. 오카야마신현립도서관의 새로운 성격과 기능

오카야마신현립도서관은 먼저 현 전체 주민(200만 규모)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으로 하였다. 그리고 지역 공공도서관들인 시(市),정(町),촌(村)립 도서관에의 지원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도서관 방문자에의 서비스를 위하여 지역 공공도서관과 차별을 두면서 조사, 연구 기능을 갖춘 현 지역의 핵심적인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성격을 정하고 기본설계를 하였다.

또 오카야마 정보 하이웨이 등 정보 기반정비가 진전됨에 따라 단시간에 광범위한 지역의 정보 전달이나 정보 입수가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환경변화가 있었다. 이로 인하여 현립도서관은 현 지역 내의 자료·정보 제공의 핵심 시설로서 종래의 도서 자료 등에 의한 서비스는 물론 오카야마 정보 하이웨이상에의 정보 발신의 중심이 되어 현 주민의 풍부한 정보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제기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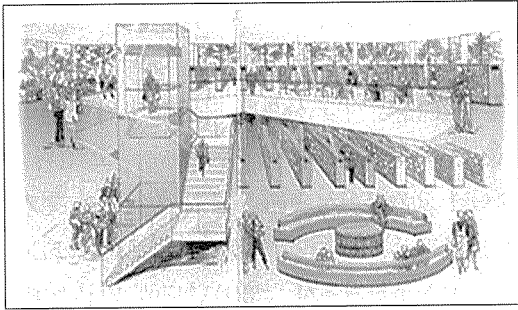
이러한 일로부터 오카야마신현립도서관은 현 주민의 요구와 시대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현 주민의 자주적인 학습·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21세기에 걸 맞는 시설로서 정비(整備)를 위한 새로운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오카야마신현립도서관의 기능은 일본의 “공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상의 바람직한 기준”(문부과학성 고시 제 132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 일반적인 기능에 따르고 있지만 지역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 변화는 있다고 한다.

오카야마현립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기본계획서 참조)

▶ 시(市),정(町),촌(村)립도서관 지원

일본 현립도서관들의 역할은 현 전체 주민에 대해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 때문에 이용자에 대해서 직접 서비스함과 함께, 주민의 가까이에 있는 시(市),정(町),촌(村)립 도서관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그 경우에 시(市),정(町),촌(村)립도서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료



의 검색·예약 및 대출·반납을 순조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이용자에 대한 직접 서비스

일본의 현립도서관도 공공도서관으로서 현 주민의 학습, 조사 연구, 일상생활상의 정보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하지만 지역 공공도서관과 차별성을 유지한다.

▶ 도서관 미설치지역에 대한 서비스

도서관이 설치되지 않은 정(町),촌(村)지역에 대하여 도서관이 설치될 때까지 공민관내에 도서실 설치를 장려하고 직접 지원을 통해 서비스를 보완한다. 또 도서관 설치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오카야마현 교육위원회, 오카야마현 도서관협회 등과 협력하여 오카야마현에 위치한 모든 도서관 진흥책이 조기에 책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 현역도서관 네트워크의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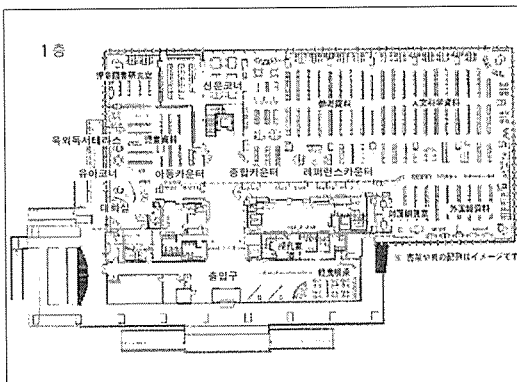
현 지역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 도서관, 전문 도서관, 공민관내 도서실 및 시험·연구기관 등들과 제휴를 취해, 현 내에 유기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를 추진하여 그 중심이 된다. 또 다른 도(都), 도(道), 부(府), 현(縣)립도서관등과도 제휴하여 현 지역 도서관에 충실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국립국회도서관이 추진하는 종합 목록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된다.

▶ 자료의 보존 센터

수집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모두 보존한다. 현립도서관은 자관의 자료 보존뿐만이 아니라 시(市),정(町),촌(村)립 도서관으로부터의 이관, 기탁을 받는 등 현 전체적 입장에 있어서의 자료 보존 도서관 역할을 수행한다.

5-3. 도서관 건축

도서관 건축은 주민들이 직접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편의성을 우선 고려하는데 각층이나 평면계획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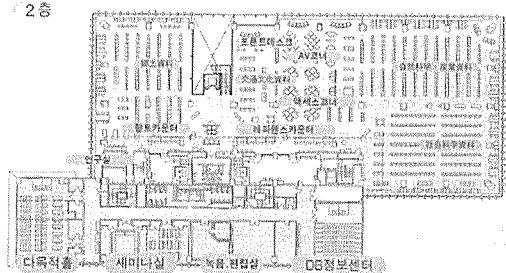


▶ 각층 구성

이용자의 편의성을 배려하여 층 규모의 면적을 크게 하고 이용서비스는 1-2층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우선 1층 부분에는, 출입구 홀 등의 입구 모든 공간 외, 브라우징 룸, 이용자가 많은 일반 참고 자료, 인문 과학 자료, 아동 자료 부문 등을 배치한다. 경양식이나 차를 판매하는 식당은 도서관 이용자 이외의 사람들도 고려하여 1층에 배치한다.

2층



한 홀(집회실), 회의실은 다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음향·영상 기기 등을 설치하고 방음대책도 충분히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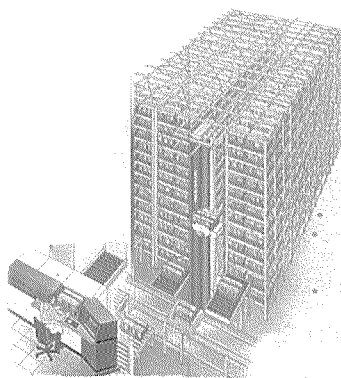
▶ 평면 계획

이용자와 직원의 동선은 이해하기 쉽고 짧게 계획하여 편의성을 도모하고 도서 자동 반송시스템을 설치한다. 서가는 3층에 설치하였는데 자동서가와 보존서가로 구별된다. 현립도서관은 지역의 유일한 자료보존도서관으로 국립국회도서관이 자료를 영구히 보존하는 것과 달리 광역도서관들은 영구보존 목적보다는 이용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나 수십만 혹은 백만 규모의 자료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기가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또한 자료관리도 용이하지 않다.(오사카부립중앙도서관은 가로, 세로 100m인 보존서고에서 사서들이 자전거를 타고 찾는다.) 2001년도에 최초로 치바(千葉)시립중앙도서관에 설치된 바 있는 자동서가(Auto Lib)를 설치하여 40만권의 자료를 관리하며 이용자가 요청 시 3분내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기타 개가서가는 160만권의 자료를 보존하도록 설계되어 앞으로 20년 동안은 서고공간의 부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자료보존은 소급적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1점은 모두 보존하는데 자관의 자료 보존뿐만이 아니라 시(市), 정(町), 촌(村)립 도서관으로부터의 이관이나 기탁을 받은 자료도 보존 하기로 하여 보존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오카야마신현립도서관은 현 공공도서관에서 자료축적의 최종 도서관으로 풍부한 자료를 평면에 배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관시 24만권(수장능력의 80%)을 1-2층에 개가제로 배가하도록 평면계획을 하였다.

도서관 입구는 도서 분실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도서관 내에서는 가능한 지역주민들이 편히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고령자 등이 이용하기 쉽게 하며 오카야마현에 65세이상 노인층이 21%이상인 것을 고려하였다.

평면구성에서 중요한 것은 장래 도서관의 변화·발전에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고정의 벽은 가능한 한 줄이고 OA기기의 설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안내판은 정상인, 장애인, 외국인 누구나 알기 쉽고 보기 쉽도록 여러 언어(주로 일본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를 사용해 제작한다.



6. 도서관 운영방침

새로운 현립도서관이 개관되면 일본에서 첨단시설을 자랑하는 공공도서관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걸맞게 향후 도서관 운영방침에도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현립 도서관 건설을 향한 준비 사무국을 설치하였고 우선 주제별 부문제에 의한 도서관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행해지도록 도서관의 계획적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수준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도록, 특히 새롭게 마련하는 아동 자료 부문에 대해서는 전문직원의 양성 및 연수를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일정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을 관장으로 임명하여 전문직 관장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수집분야는 오카야마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오카야마(현)에 관련된 특화자료(果樹·鐵·陶藝·畜産자료 등)와 오카야마현에서 출판된 자료는 모두 수집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자료와 교통자료 분야에 대해서는 수집의 범위를 주코쿠(中國)지방, 오사카의 서부지역 나아가 전국으로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종래 망라적으로 수집해 온 오카야마현 관계 자료의 대상을 고대 길비문화권(吉備 : 오카야마 고대문화) 및 밀접한 관련 지역으로 확대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도모하고 종래 중점 수집해 온 교통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을 계속·발전한다고 한다.

이상 오카야마현립도서관을 분석하면서 공공도서관 발전은 지방자치의 성숙과 비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지방분권 논의가 한창이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중앙의 법령과 지침에 따라 처리되었고 지방에서는 정책개발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분권이 추진이 되면 지방의 창의와 노력이 중요시 될 것이고 지방간의 선의의 경쟁도 있을 것이다. 일본이 20년 동안 걸어 온 지방의 행정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지난 9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새로운 도서관기준이 제시되었다. 이번에 만들어진 공공도서관기준에는 지역대표도서관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최근 지역대표도서관 활성화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제도적인 것들이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아 발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발전은 지역대표도서관의 발전에 비례할 것으로 믿는다.

도서관인의 이야기를 실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서관문화 편집실입니다.

도서관학 및 정보기술의 학술이론과 실무에 관

한 논문, 도서관계의 국내·외 소식과 사진, 회

원, 인사, 도서관과 관계 되는 수필 또는 수기

등을 보내주세요.

도서관인 여러분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 전화 : 02-535-4868

* 전송 : 02-535-5616

* E-mail : w3master@korla.or.kr

* 주소 : (137-702) 한국도서관협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 담당 : 심효정